J. Korean Home Econ. Assoc.
Vol. 50 No. 6, 43-54, October 2012
http://dx.doi.org/10.6115/khea.2012.50.6.043
e-ISSN 2234-2818 · p-ISSN 1225-0937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중학생의 자기효능감이 의복행동과 '의복 마련과 관리' 단원의 내용 활용에 미치는 영향 *

The Effects of Middle School Students' Self-Efficacy on Clothing Behavior and Contents Application of the Unit 'Preparing and Managing Clothes'

박은희(Eun-Hee Park)

Department of Clothing & Textiles, Kyungbook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factor structure of self-efficacy, clothing behaviors, contents application of the unit 'preparing and managing clothes' and the effects of self-efficacy on clothing behavior and contents application of the unit 'preparing and managing clothes'. Questionnaires were administered to 201 girl students in middle school, living in the Daegu area. Frequency, descriptive statistics,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were used for data analysis. The findings are as follows. Self-efficacy was composed of five factors, namely interpersonal skills, task performance skills, anxiety, planned performance, and challenging action. Clothing behavior was composed of five factors, namely pleasure, coordinated clothes, uniform preference, learning behavior, and fashion oriented. Contents application of the unit 'preparing and managing clothes' was composed of two factors, namely usefulness of lectures in general, and usefulness of Hanbok lecture. The effects of clothing behavior and contents application of the unit 'preparing and managing clothes' on each of the self-efficacy variables, like interpersonal skills, task performance skills, anxiety, planned performance, and challenging action were explained by factors such as pleasure, coordinated clothes, uniform preference, learning behavior and fashion oriented, and usefulness of lectures in general and usefulness of Hanbok lecture.

주제어(Keywords) : 자기효능감(self-efficacy), 의복행동(clothing behavior), '의복 마련과 관리' 단원(the unit 'preparing and managing clothes')

Ⅰ. 서 론

개인은 각자의 사고, 감정, 행동을 조절하는 자기체계를 가지고 있어 자체적인 인지구조와 정서구조를 갖고 주어진 환경을 변화시키며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을 제공함으로써 자기조절 기능을 하게 되는데 이때 중요한 요소가 자기효능감이다(p. 22)[21]. 자기효능감은 주어진 과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행위 과정을 조직하고 실행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신념으로, 예측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에서 어떤 결과를 성취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행동을 잘 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자신의 능력에 대한 개인적 판단이다[1].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문제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노력의 정도를 높이고 지속하며 실패나 좌절 이후 자신감을 쉽고 빠르게 회복하도록 이끈다. 이러한 자기효능감은 청소년 자신이 수업 후 결과를 얻는데 수업 내용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기대나 할 수 있다는 능력을 파악하는데 중요

Corresponding Author : Eun-Hee Park, Department of Clothing & Textiles, Kyungbook National University, 80, daehangro, Buk-go, Daegu, 702-701, Korea, Tel: +82-53-950-6220, Fax: +82-53-950-6219, E-mail: parkh1987@hanmail.net

* 본 논문은 2011년 대한가정학회 제64차 추계학술대회 포스터발표 논문임.

© Copyright 2012,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All rights reserved.

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사회 환경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은 이러한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그들의 취향에 따라 의복을 선택하고 표현하는 행위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들은 이성으로부터 호감을 얻고자 의복을 사용하며, 옷차림에서 동료집단에 대한 동조현상이 나타나지만 동시에 평범한 것을 싫어하며 독특한 자기만의 개성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15]. 이렇듯 청소년들은 의복을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 자기의 개성을 표현하거나 또래 집단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려는 동조가 공존하는 양면적 현상을 띠고 있다.

기술 · 가정은 실생활 적용을 위주로 하는 교과로서 학생들이 직접적인 체험 학습을 통하여 개념과 원리를 잘 이해하고, 의사결정능력, 문제해결능력, 창의력 등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는 실천교과이다. 7차 교육과정에서 가정 교과의 목표를 '가정 생활에 관련되는 다양한 실천적 경험을 통하여 자신의 적성을 계발하고 진로를 탐색하며, 일과 직업에 대한 건전한 태도를 가진다' 고 제시하였다(p. 7)[2]. 세부영역인 의생활 교육은 가정과 교육내용 중 인간의 가장 근접 환경으로 여러 가지 외적인 영향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이를 학습한 후 학생들이 실생활에서 교과내용을 얼마나 잘 실천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22]. 그리고 의생활 교육 내용에 대한 인식은 가정과 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긍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11], 의생활 영역에 대한 관심도, 흥미도, 만족도, 필요도, 활용도 등에서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8]. 이와 같이 선행연구에서는 기술 · 가정 교과 내용과 관련하여 연구가 대부분 이루어져 있어 수업을 학습하는데 필요한 동기, 기대, 결과에 대한 믿음의 정도에 따른 의생활 수업 효과를 다룬 연구는 미비하다. 따라서 기술 · 가정 '의복 마련과 관리' 단원을 학습한 후 자신에게 맞는 옷차림을 할 수 있고, 가정에서 직접 옷을 손질하거나 소재에 적합한 세탁 방법을 알고, 이들이 과제 활동을 수행 할 수 있다는 개인의 판단 능력에 따라 내용 활용 정도는 다를 것이다. 또한 중학생은 외모에 관심이 높고 주변의 친구에 영향을 받아 유행을 추종하거나 차별화시키려는 의복행동을 하며, 이런 의복행동은 학습 능력이나 대인관계 능력을 잘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결과 기대와도 관계가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업 내용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기대나 할 수 있다는 능력과 관련된 자기효능감이 의복행동과 '의복 마련과 관리' 단원의 내용 활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자기효능감에 따라 '의복 마련과 관리' 단원의 내용 활용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자기효능감

Bandura의 사회인지이론에서 최초로 언급된 자기효능감은 주어진 과제나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신념으로, 미래에 일어날 과제나 행동에 대한 기대라고 할 수 있다[1]. 이는 주어진 과제를 학습하거나 수행하는데 있어서 능력이 있다고 느끼는 학생들은 어려움에 직면하여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열심히 노력하며 더 오래 동안 지속하려는 경향을 나타낸다[24]. 게다가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개인은 그 과제를 수행하려는 시도를 더 자주하게 되고, 성공적으로 일을 수행하여 성취수준을 높이려는 경향을 나타내어 성취수준과도 관련이 있다.

수업과 관련된 자기효능감에서, Park 외는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은 남학생들이 과제 가치를 높게 지각할 때 자기효능감 수준이 낮은 학생들보다 과제 지속행동 수준이 더 높다고 하였으며, 주어진 과제를 잘 할 자신이 있고 가치가 높다고 느낀 학생일수록 과제활동에 열심히 참여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하였다[23]. Ko 외는 교양수업에 참여하는 대학생들의 대인관계 성향은 수업에 참여함으로서 다른 전공의 학생들과 교양체육 수업을 통해 사교성이 높아지고 자기효능감이 증가하여 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12]. Kim은 자신에게 주어진 결과를 자신의 행동이나 개인적인 특성들의 결과라고 믿는 내적귀인 성향이 높은 학생일수록 진로결정과 관련된 과제 및 행동을 결정할 수 있다는 신념을 높게 지각한 반면에 자신에게 주어진 결과가 자신의 의지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기보다는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다른 사람들의 통제에 의한 결과라고 믿는 타인귀인 성향이 높은 학생일수록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9].

의복행동과 관련된 자기효능감에서, Koh 외는 사회적 자기효능감은 중학생집단이 고등학생과 대학생집단보다 더 사교적이며 사회적 모임에 더 적극적이라고 하였고, 타인위주의 의복착용은 고등학생집단에서, 개성표현과 의복과시성은 고등학생과 대학생집단에서, 의복관심은 중학생과 대학생집단에서, 심리적 의복의존성은 대학생집단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고 하였다[13]. Moon 외는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의복에 대한 유행성과 흥미성을 더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신의 사회적 능력에 대한 신념을 가진 여성이 최신유행의 의복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착용하게 되며 변화된 자신의 모습에 즐거워하고 자신감을 가진다고 하였다. 또한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낮은 집단은 동조성을 더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신에 대한 신념이 부족한 여성은 주위의 평가가 부정적이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

해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의복을 선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19]. Lee 외는 대인관계에서의 자기 자신의 능력에 대한 주관적 평가인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외모관리행동도 더 많아짐을 알 수 있었고, 자아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가 높을수록 외모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도 정(+)의 관계로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런 결과는 여러 상황에서 유능하게 행동하려는 사람들일수록 더욱 적극적인 사회 활동이나 대인관계를 위해서 자신의 단점을 보완하고 자신의 장점을 부각시키고자 하며, 그 일환으로 외모관리행동을 통해 자신의 이미지를 향상시키려는 다양한 노력을 한다고 하였다[18].

이와 같이 자기효능감은 개인의 능력에 관한 믿음으로 상황이나 개인에 따라 다양한 변인과 관련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자기효능감은 청소년들의 수업과 관련하여 자신이 결과를 얻는데 수업 내용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기대나 할 수 있다는 능력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자신의 외모와 관련하여 의복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2. 청소년의 의복행동

청소년은 아동과 성인의 중간에 위치하며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아동에서 성인으로 되어 가는 과도기적 존재로서 대략 12-23, 24세까지로, 사춘기를 기점으로 하여 이후 약 10년간을 포함하는 시기지만, 보통 13-18의 중·고등학생을 청소년이라 일컫는다[10].

청소년기는 자아에 대해 인식하게 되면서 신체적 자아의 연장이자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중요한 상징적 수단인 의복에 관심이 높다[6]. 또한 그들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증가로 타인에게 비추어지는 자신의 모습에 주의를 기울여 의복을 착용하려 하며 타인의 주의를 끌기 위해 의복의 과시적 경향을 나타낸다[26]. 이때 이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여 이성에게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이기를 원하므로 의복이라든지 신체적 외모에서 타인들의 승인을 받으려 하는 태도가 형성된다(p. 289)[16]. 특히 청소년기는 자신의 용모나 행동이 타인의 관심을 끌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외모 및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리라고 믿는 자아중심성적 사고를 하게 된다[3]. 이는 청소년기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독특한 특성으로 중·고등학생집단에서는 또래유행추종과 타인위주 의복착용이 높은 설명력을 갖는 것은 이러한 청소년기 특성과 관련이 있다[13]. 게다가 청소년은 사회화 과정에서 또래집단에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옷차림을 통해 그들 집단의 정체성을 표현하고자 한다. 이들은 연예인들의 외형적인 모습에서 의복 스타일, 액세서리, 헤어스타일 등을 모방하는 행동을 보이는데 이는 자신의 부족함을 대리 만족하려는 심리적 현상으로 표출된다. 즉, 남녀고등학생은 자기효능감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유행지식과 경제적과시소비가 더 높았으며,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유행흥미와 유행지식에서 높았고, 남학생은 상표과시에서 더 높았다[20]. 또한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여학생들은 대인관련 사회적 상황에 대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유행하는 스타일의 동조에 의해 인정을 받고자하는 욕구가 낮은 것으로 보았다[14].

교복은 학생신분과 소속감, 유대감을 표현하기 위해 스타일, 의복재료, 색채를 통일시키며, 각 학교에 맞는 상징성과 학생 신분에 어울리는 디자인을 적용하여 공식적인 의복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최근 의복이 더욱 개성화되고, 다양한 소재와 디자인이 개발되면서 교복의 색상과 무늬, 디자인이 다양해졌다[5]. 또한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의사가 반영된 디자인을 적용시키거나 교복 착용의 규칙에서 학생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와 같이 현재 교복은 획일화, 집단화라는 의미에서 다양화, 개성화, 효율화를 추구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의복행동은 중학생의 일상생활 속에서 의복을 선택하거나 착용하여 심리적으로 느끼는 감정과 외적으로 느끼는 감정을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을 의미한다. 중학생은 오랜 시간 교복을 착용하고 그 이외 시간은 캐주얼웨어를 주로 입게 되므로 교복과 캐주얼웨어 착용에 대한 의복행동을 알아보고자 한다.

3. 기술·가정 '의복 마련과 관리' 단원의 내용 활용

제7차 교육과정의 시기(1997-2007)에는 기술·가정과의 구조에 큰 변화가 있었는데 종전의 기술·산업과 가정 과목으로 구분하여 이수하던 것을 기술·가정으로 통합 이수하게 함으로써 2개 과목을 한 교과로 병합하였고, 남녀 모두를 이수대상으로 하였다. 중학교에서 의생활 영역에 대한 학습은 8학년 기술·가정 교과에서 다루고 있으며, 대단원 '의복 마련과 관리'의 중단원 '옷차림', '의복 마련 계획과 구입', '옷의 손질과 보관', '옷 만들기와 재활용'으로 구성되었다. 중단원 '옷차림'은 의복의 기능과 바른 옷차림에 대한 내용이 있으며, 중단원 '의복 마련 계획과 구입'은 섬유와 옷감에 대한 이해와 의복을 마련하는 방법을 다루고 있다. 중단원 '옷의 손질과 보관'은 의복의 소재, 옷의 손질과 얼룩빼기, 옷의 세탁, 옷의 간단한 수선과 옷을 보관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있고, 중단원 '옷 만들기와 재활용'은 간단한 의복 만들기와 입지 않는 옷을 이용하여 재활용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기술·가정 교과 내의 의생활 영역에 관련된 선행연구는 의생활 교육 내용연구[25]와 의생활 영역에 대한 인식, 선호도, 흥미도, 필요도, 실천도, 활용도[7, 8, 11, 22, 27]에 관한

연구가 있다.

Seong은 중 · 고등학교 가정 과목의 교육 과정에 포함된 의생활 분야의 기초 개념을 선정하고, 이 개념들에 대한 중 · 고등학교 학생, 교사, 전공 교수들의 교육 요구도를 조사한 결과, 학생들은 현재 자신의 생활에 활용 가능한 내용에 요구도가 높은 반면, 교수는 이론적이고 기초적인 개념에 높은 요구 수준을 나타냈고, 만들기 실습에 대해서는 학생, 교수가 공통적으로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나 교사는 중간 정도였다. 구성된 단원에 따른 학생, 교사, 전공 교수 세 집단 간의 요구도를 분석한 결과 '의복 마련하기' 이외에는 모든 단원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25].

Pak 외는 의생활 교육내용이 영역별 실천도 평균점수는 전반적으로 낮았다. 의생활 교육내용 영역별 필요도와 같이 의복의 선택과 착용, 의복의 재료와 관리, 편물과 자수, 의복의 디자인과 제작 순으로 나타났다. 의복의 선택과 착용 영역과 의복의 재료와 관리 영역의 실천도는 외모를 향상시킬 수 있는 내용의 평균점수에서 높았다. 의복의 디자인과 제작 영역은 의복디자인의 평가에 관한 내용이, 편물과 자수 영역에서는 의생활 관련 직업에 대한 내용의 실천도에서 높게 나타났다. 의생활 교육내용의 필요도와 실천도는 모두 정적상관관계를 타나내어 의생활 교육내용에 대한 필요도가 높을수록 실천도도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22].

Kang 외는 옷차림, 의복계획, 의복재료, 의복관리, 의복구성의 5개 세부영역으로 나누어 세부영역별 수업 만족도를 비교한 결과 4항목 모두 3점을 넘지 못해 보통이하의 만족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세부영역에 따른 교과내용의 필요도는 의복재료 영역이 가장 낮은 필요도를 보였으며, 나머지 영역들은 3점을 넘어 보통 이상의 필요도를 보였다고 하였다[8].

Son 외는 남녀고등학생은 의생활영역에 대해 생각하는 학습 필요도가 비교적 높았으며 옷의 손질과 보관, 옷차림, 의복마련하기, 생활용품 만들기, 옷 만들기와 재활용하기 순으로 학습필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학습필요도를 크게 느끼고 있었으며, 남녀 모두 선호도가 높을수록 의생활영역의 학습필요도가 높았다. 의생황영역 실천도는 남녀 모두 옷차림과 의복마련하기를 제외하고는 낮게 나타났고, 옷차림 영역에서는 여학생의 실천도가 남학생보다 높았으며, 생활용품 만들기 영역에서는 남학생의 실천도가 여학생보다 높았다[27].

Ju 외는 초 · 중 · 고 실과(기술 · 가정) 의생활 영역의 교육내용 요소에 대한 흥미도에서 초등학교에서 재봉틀 다루기, 쿠션이나 방석만들기 등 실습 영역에 대한 흥미도가 가장 낮을 뿐 아니라 학습량도 많고, 이해도도 낮다고 인식했기 때문에 이 내용요소를 중학교나 고등학교로 이동하여 학습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 하다고 하였다. 특히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중학생은 초 · 고등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흥미가 낮게 나타났으므로 흥미를 높이기 위한 적합한 수업내용이나 수업방법의 개발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7].

Kim 외는 중학교 기술 · 가정 교과에 대한 인식은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기술 · 가정 교과 내의 의생활 영역의 흥미도도 낮았지만, 그 중 옷을 입는 방법이나 디자인, 의복을 구입하는 것에는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생활 영역의 학습 요구에서는 코디네이션 항목에 대해 가장 높은 학습 요구를 보였으며, 영역별 활용도에서는 옷차림, 의복마련하기, 옷의 손질과 보관, 옷 만들기와 재활용 순으로 실생활에서 활용되고 있었다. 의생활 영역에 대한 흥미 정도에 따라 의생활 교과 영역에서 학습 요구도에 차이가 있었으며, 의생활에 대한 흥미도가 높을수록 학습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11].

본 연구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 중학교 2학년 기술 · 가정 교과 '의복 마련과 관리' 단원의 내용 활용을 알아보기 위해 대단원 '의복 마련과 관리', 중단원 '옷차림', '옷의 구매와 관리', '옷의 손질과 보관' 의 내용을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문제

1. 중학생의 자기효능감, 의복행동의 요인을 분석한다.
2. 기술 · 가정 '의복 마련과 관리' 단원의 내용 활용을 알아본다.
3. 중학생의 자기효능감이 의복행동과 '의복 마련과 관리' 단원의 내용 활용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2.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연구대상은 대구광역시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을 선정하였다. 그 이유는 제7차 교육과정에 적용된 기술 · 가정 교과 의생활 영역의 '의복 마련과 관리' 단원이 중학교 2학년에 편성되어 있어, 조사 시기에 중학교 3학년이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교육과정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선정하였다.

예비 조사는 질문지를 통해 여중생 33명을 임의로 선정하여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질문지를 수정,보완하여 본 조사에 사용하였다. 본 조사는 2011년 4월 10일-4월 20일에 걸쳐 설문지 220부를 배부하여 실시하였다. 이 중 212부가 회수되었고,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한 201부를 자료에 사용하였다.

3. 측정도구 및 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기효능감, 의복행동의 측정항목들은 기존 연구에서 사용된 항목들을 연구자가 수정, 보완하였으며, 중학교 2학년 기술 · 가정 교과 '의복 마련과 관리' 단원의 내용 활용 측정항목들은 연구자가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항목들은 예비조사를 통해 유효성을 검증한 후 사용하였으며, 5점 리커트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매우 그렇다)로 각 개념항목을 측정하였다. 자기효능감, 의복행동, '의복 마련과 관리' 단원의 내용 활용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질문지법을 이용하였다.

자기효능감의 측정문항은 선행연구(p. 38)[21]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수정, 보완하여 18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의복행동의 측정문항은 선행연구[13]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수정, 보완한 15문항을 사용하였다. '의복 마련과 관리' 단원의 내용 활용은 중2 기술 · 가정 교과서를 토대로 하여 연구자가 개발한 11문항을 사용하였다.

'의복 마련과 관리' 단원의 내용 활용을 알아보기 위해 제7차 교육과정(1997-2007) 중학교 국민공통기본교과목인 기술 · 가정 과목에 제시된 중 2 학년 대단원 '의복마련과 관리', 중단원 '옷의 기능과 옷차림', '옷의 구매와 관리', '진로 및 한복 입기 실습' 등의 내용을 활용과 실습으로 구분하여 연구자가 문항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중단원 '의복손질과 보관'을 학습한 후 실질적으로 가정에서 실행하는 것으로 '손빨래', '세탁기 사용', '다림질' 각 문항을 횟수로 나타내었다.

SPSS PC+ 18.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통계방법은 빈도, 평균, 표준편차, 요인분석, 신뢰도 검증,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Ⅳ. 결과 및 논의

1. 중학생의 자기효능감, 의복행동 요인분석

중학생의 자기효능감을 살펴보기 위해 주성분 분석과 Varimax 회전을 이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Table 1과 같이 5개의 자기효능감 요인이 추출되었다. 모든 문항은 반대의미도 그대로 포함시켰으며 절대값으로 요인분석을 하였다. 요인 1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소개를 잘 할 수 있으며, 모임의 리더나 사회를 맡아 진행을 하면 잘 할 수 있다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대인관계능력"으로 명명

Table 1.
Factor analysis for self-efficacy

Factor	Variables	Loading	Eigen value	Accumulation variance (%)	Cronbach's α (Mean)
Interpersonal skills	I can express myself well in front of many people.	.78	4.13	21.74	.89 (3.03)
	I present with confidence in front of lots of people in class or public meeting.	.78			
	I am good at presiding or being a leader in a group.	.76			
	I can lead conversation with a number of the opposite sex at first brush.	.75			
	I deliver exactly what I think in front of lots of people.	.72			
	I can attract interest from the other side, in conversation with a member of the opposite sex.	.70			
Task performance skills	I'm capable of dealing well with dangerous situations.	.80	3.49	40.12	.87 (3.47)
	I'm capable of coping with difficult situations.	.79			
	I'm capable of distinguishing what I can and what I	.75			
	I'm capable of making good use of information to do the work given.	.71			
	My judgement on a problem is usually correct.	.68			
Anxiety	When faced with a big problem, I can't do anything, and feel anxious.	.88	2.29	52.18	.77 (3.05)
	When faced with a difficult problem, I am all in a fog.	.86			
	When threatened, I feel too stressed, more than	.65			
Planned performance	I always establish my goal, and check my progress on the basis of the goal.	.80	1.58	60.48	.64 (3.05)
	I tend to deal with things systematically.	.79			
Challenging action	If I have a choice on what to do, I'd choose easier courses of action than choose difficult ones.	.80	1.51	68.40	.58 (2.59)
	I prefer rather difficult things, to easy ones.	.77			

하였다. 요인 2는 위험한 상황에서 잘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과제처리능력"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3은 큰 문제가 생기면 불안해져서 아무 것도 할 수 없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당황스러워 어찌할 바를 모른다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불안감"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4는 항상 목표를 세우고 그것에 비추어서 일의 진행 상태를 확인하며, 일을 조직적으로 처리하는 편이다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계획적수행"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5는 일을 선택할 수 있다면 쉬운것 보다는 어려운 것을 선택한다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도전성"으로 명명하였다. 5개 요인별 신뢰도 확인결과 Cronbach' α 값이 요인 1은 .89, 요인 2는 .87, 요인 3은 .77, 요인 4는 .64, 요인 5는 .58로 나타났으며, 전체설명력은 68.40%였다. 자기효능감의 요인 중 대인관계능력과 과제처리능력에서 40.12%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이는 중학생에게 학교는 사회공간이자 삶의 전반적인 생활공간이 되어 대인관계와 학업에 대한 자신의 능력에 대한 기대 정도에 따라 삶의 만족이 달라지므로 두 요인에서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주어진 과제나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능력에 대한 신념을 의미하는 자기효능감의 평균에서, 중학생들은 학교에서 과제나 그 이외 일에 대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려는 믿음을 보였다. 반면에 도전성은 다른 요인보다 평균이 낮게 나타나 이들은 어려운 일보다는 쉬운 일을 선택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중학생의 의복에 대한 행동의 하위개념을 살펴보기 위해 주성분 분석과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Table 2와 같이 5개의 의복행동 요인이 추출되었다. 요인 1은 외출할 때 옷에 신경을 쓰고, 마음에 드는 옷을 입으면 발걸음이 가벼워진다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즐거움"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2는 내 취향에 맞는 옷을 선택할 수 있으며, 때와 장소에 맞는 옷을 입을 수 있다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조화로운 옷차림"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3은 교복을 입은 나의 모습을 보면 예쁘고 나의 이미지를 잘 표현해 준다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교복선호"로 명명하였다. 요인 4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이해하여 실질적으로 적용시켜 입는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학습 행동"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5는 연예인들의 의복을 따라 입고 유행하는 옷을 입으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유행지향"으로 명명하였다. 5개 요인별 신뢰도 확인결과 Cronbach' α 값이 요인 1은 .79, 요인 2는 .78, 요인 3은 .77, 요인 4는 .70, 요인 5는 .65로 나타났으며, 전체설명력은 67.64%였다.

의복행동의 평균에서, 즐거움, 조화로운 옷차림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 중학생은 전반적으로 의복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보여지며, 특히 외출할 때 옷에 신경을 쓰고 쇼핑할 때 기분이 좋아지며, 자신의 취향에 맞는 옷을 선택할 수 있고, 때와 장소에 적합한 의복을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복선호가 2.71을 나타내어 평균에는 못 미치지만 교복 착용에 부정적인 생각은 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교복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변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즉, 현재 교복은 학교마다 자율적인 선택권이 주어짐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디자인이나 소재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권이 주어져, 착용시 개성과 동조를 교복으로 표현하는 것으

Table 2.
Factor analysis for clothing behavior

Factor	Variables	Loading	Eigen value	Accumulation variance (%)	Cronbach's α (Mean)
Pleasure	When I go out, my favorite clothes make my step light.	.75	2.76	18.41	.79 (3.94)
	When I go out, I care about what to wear.	.74			
	Shopping together with friends makes me happy.	.72			
	Talking about clothes makes me exited.	.69			
	I check my clothes are in harmony after putting them on.	.63			
Coordinated clothes	I can choose clothes of my taste.	.83	2.18	32.94	.78 (3.92)
	I can wear my clothes by T.P.O.	.78			
	I can choose clothes of my favorite colors.	.77			
Uniform preference	My school uniform expresses my image well.	.85	2.07	46.72	.77 (2.71)
	I find myself looking pretty in school uniform.	.83			
	I feel easy with my school uniform.	.77			
Learning behavior	I wear my clothes understanding the effect of optical illusion which I learned in class.	.87	1.61	57.42	.70 (3.00)
	I wear my clothes by the principle of design.	.83			
Fashion oriented	I try to wear the clothes following the way that entertainers do.	.84	1.53	67.64	.65 (2.67)
	Wearing clothes in vogue makes me happy.	.83			

로 사료된다. 반면에 유행지향에서 중학생은 연예인들의 외모에 관심을 가지지만 자신이 착용하는 의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기술 · 가정 '의복 마련과 관리' 단원을 학습한 후 착시효과나 디자인 원리를 적용하여 의복을 선택하거나 착용하는 것이 평균 3.0을 나타내었다. 이는 '의복 마련과 관리' 단원의 수업 내용을 실생활에 적용하여 수업을 진행하면, 이로 인하여 학습자의 적극적인 활동이 이루어져 실천 학문으로 교과목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 것으로 사료된다.

2. 기술 · 가정 '의복 마련과 관리' 단원의 내용 활용

중학교 2학년 기술 · 가정 '의복 마련과 관리' 단원의 내용 활용은 Table 3과 같다. '의복 마련과 관리' 단원의 내용 활용에서 평균점수가 3점이 넘지 않는 변인은 옷차림, 의복 마련관리, 진로, 총체적 수업이었고, 3점이 넘는 변인은 옷입기의 한복입기였다. 옷차림에서 '수업 후 나의 모습(옷차림)에 변화가 있었다', '옷차림을 배운 후 나는 옷을 입을 때 자신감이 생겼다', '수업시간에 배운 것을 실질적으로 적용하여 옷을 입는다' 순으로 나타났다. 의복 마련하기에서는 '옷을 살 때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이 도움 된다'에서 2.74의 평균을 나타내어 본인이 직접 옷을 구매하는 경험을 나타내므로 구매시 의사결정과정에서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상기시켜 옷을 구매하는 것으로 도움이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님을 보여준다. 이는 의복을 구입하는 것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 Kim 외의 연구를 뒷받침한다[11]. 진로에서는 '수업 후 패션관련 직업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에서 평균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나 7차 교육과정 기술 · 가정 교과 내용에 제시된 진로탐색은 대단원 마무리의 인터넷 활용과제에 의복과 관련 있는 직업찾기(p. 73)[17], 옷만들기와 재활용의 진로탐색(p. 68)[4]에서 제시되어 있다. 본시 수업 내용에서 다루지 않고 활동과제나 마무리에서 다루어지므로 학습효과가 낮은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교과 내용에서 다양한 패션 관련 직업을 학습함으로서 기술 · 가정 교과에 흥미를 가질 수 있으며, 수업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총체적 수업 영역인 '의복마련과 관리 단원 수업 시간이 기다려진다', '이 수업은 나에게 유익한 수업이었다', 순으로 이는 '의복 마련과 관리' 단원을 학습 후 활용도가 낮음을 보여준다. 옷차림 소단원인 옷입기의 한복입기는 실습에 해당되어 다르게 분류하였으며, 한복입기의 정서는 '한복입기 수업 후 한복 입는 것에 자신이 생겼다', '수업 후 나는 한국적인 정서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다', 한복입기의 실습은 '수업 후 저고리 고름매기를 할 수 있다', '수업 후 남자바지(여자치마) 입는 법을 알게 되었다' 순으로 평균점수에서 3.0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고, 실습을 통해 직접 입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한복에 대한 불편함을 줄이고, 한국의 전통미를 느낄 수 있게 한다.

'의복 마련과 관리' 단원의 '옷차림'에서 평균 점수가 낮게 나타난 것은 학습효과에 의해 옷차림의 변화나 자신감을 가지는 것, 적용하는 것이 높지 않다. 이는 옷차림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평소 의복에 관심을 가지고 때, 장소, 상황에 맞게 착용하였을 때 주변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받으면 자신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수업 효과로 보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수업 효과가 가장 높은 것은 한복입기 실습이었다. 직접 한복 저고리 고름을 매기를 하였고, 남자바지(여자치마)를 입어서 실습을 함으로 학습효과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즉, 의생활 단원의 교수-학습 방법은 이론 수업보다는 실기수업을 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는 '의복 마련과 관리' 단원의 실생활 활용도는 옷차림 영역에서만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나머지 영역에는 잘 활용되고 있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한 Kim 외의 연구를 뒷받침한다[11].

Table 3에 제시한 중학교 2학년 기술 · 가정 '의복 마련과 관리' 단원의 활용 문항을 주성분 분석과 요인분석을 실시한

Table 3.
Contents application of the unit 'preparing and managing clothes'

Preparing and managing clothes	Variables	*M (SD)*
Clothing	The class changed my way of wearing clothes.	2.37 (.95)
	Learning clothing brought me confidence in wearing my clothes.	2.40 (.82)
	I practically apply what I learned in class to wear my clothes.	2.55 (.88)
Preparing clothes	What I learned in class is helpful when I buy clothes.	2.74 (.95)
Career path	I could get some information on fashion-related jobs after the class.	2.29 (.95)
Total lecturing	I become to wait the class of preparing and managing clothes.	2.55 (.93)
	This class is helpful for me.	2.78 (.94)
Emotions in wearing Hanbok	I feel confident in wearing Hanbok, after the class on wearing Hanbok.	2.61 (.93)
	After class, I start to think of Korean emotions.	2.81 (.97)
Practice of wearing Hanbok	After class, I can tie 'Koreum' of Jeogori.	3.12 (1.06)
	After class, I have learnt how to wear men's pants (women's skirt).	3.13 (1.03)

Table 4.
Factor analysis for contents application of the unit 'preparing and managing clothes'

Factor	Variables	Loading	Eigen value	Accumulation variance (%)	Cronbach's α (Mean)
Usefulness of lectures in general	I practically apply what I learned in class to wear my clothes.	.80	4.11	37.32	.88 (2.60)
	This class is helpful for me.	.78			
	What I learned in class is helpful when I buy clothes.	.78			
	The class changed my way of wearing clothes.	.75			
	Learning clothing brought me confidence in wearing my clothes.	.70			
	I become to wait the class of preparing and managing clothes.	.70			
	I could get some information on fashion-related jobs after the class.	.67			
Usefulness of Hanbok lecture	After class, I can tie 'Koreum' of Jeogori.	.89	2.76	62.45	.84 (2.92)
	After class, I have learnt how to wear men's pants(women's skirt).	.88			
	I feel confident in wearing Hanbok, after the class on wearing Hanbok.	.76			
	After class, I start to think of Korean emotions.	.63			

결과 Table 4와 같으며 2개 요인이 추출되었다. 중학교 2학년 기술 · 가정 대단원의 '의복 마련과 관리', 중단원의 내용인 옷차림, 의복 마련하기, 진로, 총체적 수업으로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실질적으로 적용하여 옷을 입으며 이 수업은 나에게 유익한 수업이었다로 구성되어 "전반적 수업의 유용성"으로 명명하였고, 중단원 옷차림의 한복입기는 수업 후 저고리 고름매기를 할 수 있고, 남자바지(여자치마) 입는 법을 알게 되어 한복 입는 것에 자신감이 생겼다로 구성되어 "한복 수업의 유용성"으로 명명하였다. 2개 요인별 신뢰도 확인결과 Cronbach' α 값이 요인 1은 .88, 요인 2는 .84로 나타났으며, 전체설명력은 62.45%였다.

대단원 '의복 마련과 관리', 중단원 '의복 손질과 보관'을 학습한 내용을 실제적으로 가정에서 체험활동, 탐구 활동이나 해보기와 관련된 내용으로 손빨래, 세탁기 사용, 다림질의 횟수를 조사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중단원 '의복 손질과 보관'을 학습한 후 5개월 간 가정에서 직접 해 본 경험을 빈도로 나타내었다. 손빨래, 세탁기 사용, 다림질을 모두 안 함에서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1-5회 실습을 한 것으로 나타나 수업시간에 교사는 가정에서 체험활동, 탐구활동, 해보기 등과 관련된 활동을 직접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일에 대한 즐거움과 가족 구성원의 역할 분담의 필요성을 인식시킨다.

Table 5.
Contents application of the unit 'handling and keeping clothes'

Handling and keeping clothes	Hand wash *n* (%)	Washing machine *n* (%)	Ironing *n* (%)
Never	124 (61.7)	109 (54.2)	132 (65.7)
1-5 times	61 (30.3)	43 (21.4)	47 (23.4)
6-10 times	11 (5.5)	16 (8.0)	12 (6.0)
More than 11 times	5 (2.5)	33 (16.4)	10 (5.0)
Total	201 (100)	201 (100)	201 (100)

3. 중학생의 자기효능감이 의복행동과 '의복 마련과 관리' 단원의 내용 활용에 미치는 영향

중학생의 자기효능감이 의복행동과 '의복 마련과 관리' 단원의 내용 활용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유의적인 변수와 설명력에 대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자기효능감 중 대인관계능력(β = .39)은 의복행동의 즐거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능력이 높을수록 의복행동의 즐거움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개인적으로나 공식적인 모임에서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는 중학생은 외출할 때 옷에 신경을 쓰거나 마음에 드는 옷을 입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사회적 능력에 대한 신념을 가진 여성이 최신유행의 의복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착용하게 되며 변화된 자신의 모습에 즐거워하고 자신감을 가진다고 한 Moon 외의 연구와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외모관리 행동을 더 많이 한다고 한 Lee 외의 연구를 뒷받침한다[18, 19]. 자기효능감 중 과제처리능력(β = .26)은 의복행동의 조화로운 옷차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제처리능력이 높을수록 의복행동의 조화로운 옷차림에서 높

게 나타났다. '의복 마련과 관리' 단원의 탐구활동이나 체험활동을 할 경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중학생일수록 자신의 취향에 맞는 옷을 선택하고 때와 장소에 적합한 옷을 입는 중학생들이다. 자기효능감 중 대인관계능력(β = .20), 과제처리능력(β = .20)은 의복행동의 교복선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복으로 자신의 멋을 살리는 중학생은 여러 사람이 모인 장소나 몇 명의 또래 친구와의 모임에서 자신의 의사표현을 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자기효능감 중 과제처리능력(β = .19), 불안감(β = .14)은 의복행동의 학습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활용하는 능력이 높을수록,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당황해할수록, 옷을 입을 때 디자인의 원리를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주어진 과제를 잘 할 자신이 있고 가치가 높다고 느낀 학생일수록 과제활동에 열심히 참여한다고 한 Park 외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23]. 자기효능감 중 대인관계능력(β = .13)과 불안감(β = .25)은 의복행동의 유행지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리더의 역할을 하지만 문제가 생

Table 6.
The effects of self-efficacy on clothing behavior and contents application of the unit 'preparing and managing clothes'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β	*t*	*F*	R^2
Clothing behavior	Pleasure	Interpersonal skills	.39	5.91***	7.58***	.16
		Task performance skills	.04	.55		
		Anxiety	−.06	−.89		
		Planned performance	−.02	−.37		
		Challenging action	.09	1.32		
	Coordinated clothes	Interpersonal skills	.08	1.18	3.50**	.08
		Task performance skills	.26	3.85***		
		Anxiety	.05	.77		
		Planned performance	.04	.62		
		Challenging action	.04	.59		
	Uniform preference	Interpersonal skills	.20	2.88**	3.68**	.09
		Task performance skills	.20	2.98**		
		Anxiety	.08	1.09		
		Planned performance	−.05	−.74		
		Challenging action	.01	.16		
	Learning behavior	Interpersonal skills	.10	1.43	3.36**	.08
		Task performance skills	.19	2.81**		
		Anxiety	.14	1.99*		
		Planned performance	.10	1.40		
		Challenging action	.07	.97		
	Fashion oriented	Interpersonal skills	.13	1.99*	4.54***	.10
		Task performance skills	−.12	−1.83		
		Anxiety	.25	3.75***		
		Planned performance	.07	1.10		
		Challenging action	.02	.35		
Contents application of the unit 'preparing and managing clothes'	Usefulness of lectures in general	Interpersonal skills	.08	1.12	2.05*	.05
		Task performance skills	.14	1.97*		
		Anxiety	−.03	−.36		
		Planned performance	.15	2.21*		
		Challenging action	.03	.36		
	Usefulness of Hanbok lecture	Interpersonal skills	.10	1.42	4.28***	.10
		Task performance skills	.18	2.70**		
		Anxiety	−.15	−2.15*		
		Planned performance	.09	1.28		
		Challenging action	.17	2.43*		

*$p < .05$. **$p < .01$ ***$p < .001$.

기면 당황해 하는 중학생일수록 유행하는 옷을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형적으로 친구들의 부러움을 받지만 내면적으로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어 그 불안감을 감추기 위해 외형적으로 더욱 돋보이기를 원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신에 대한 신념이 부족한 여성은 주위의 평가가 부정적이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의복을 선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한 Moon 외의 연구를 뒷받침한다[19]. 자기효능감 중 과제처리능력(β = .14), 계획적수행(β = .15)은 '의복 마련과 관리' 단원의 전반적 수업의 유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설명력은 낮았다. 자기효능감 중 과제처리능력(β = .18), 불안감(β = −.15), 도전성(β = .17)은 '의복 마련과 관리' 단원의 내용 활용에서 한복 수업의 유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제처리능력이 높을수록, 불안감이 낮을수록 그리고 도전성이 높은 중학생은 한복수업의 유용성을 높게 인지한다. 즉, 어려운 과제라 할지라도 계획을 세워서 조직적으로 수행하므로 불안해하기보다는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는 중학생은 한복 입는 것이 생소하지만 저고리 고름을 매고, 치마 입는 법을 학습하여 이로 인해 자신감을 높게 인지하였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자기효능감이 의복행동과 '의복 마련과 관리' 단원의 내용 활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중학생의 자기효능감에 따른 '의복 마련과 관리' 단원의 내용 활용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중학생의 자기효능감은 대인관계능력, 과제처리능력, 불안감, 계획적수행, 도전성으로 나타났으며, 의복행동은 즐거움, 조화로운 옷차림, 교복선호, 학습행동, 유행지향으로 나타났다. '의복 마련과 관리' 단원의 내용 활용은 전반적 수업의 유용성, 한복 수업의 유용성으로 나타났다.

둘째, 중학교 2학년 기술 · 가정 '의복 마련과 관리' 단원의 내용 활용에서 평균점수가 3점이 넘지 않는 변인은 옷차림, 의복마련관리, 진로, 총체적 수업이었고, 3점이 넘는 변인은 옷입기의 한복입기였다. 가정교과는 실천교과로서 개인이 가정생활에서 할 수 있는 일과 산업 현장에서 하는 일로 나누어져 산업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직업과 관련되어 있어 산업체와 연계하여 현장을 탐방하거나 자료를 직접 찾아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또한 우리의 전통 한복은 실생활에 입혀지기 보다는 명절에 입는 의복으로 수업을 통해서 한국적인 정서를 느끼고 한복 바르게 입는 방법을 학습시켜,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중단원 '의복 손질과 보관'을 학습한 후 가정에서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손빨래, 세탁기 사용, 다림질의 횟수를 살펴본 결과, 모두 안함에서 가장 높았다. '의복 손질과 보관' 단원의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노동의 필요성, 가사분담으로 인한 가족 구성원의 역할을 인지하여 개인의 존재감과 가족 간의 화합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중학생의 자기효능감이 의복행동과 '의복 마련과 관리' 단원의 내용 활용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었다. 대인관계능력이 높을수록 의복행동의 즐거움에서 높았다. 이는 개인적으로나 공식적인 모임에서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는 중학생은 외출할 때 옷에 신경을 쓰거나 마음에 드는 옷을 입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과제처리능력이 높을수록 의복행동의 조화로운 옷차림에서 높았다. 즉, '의복 마련과 관리' 단원의 탐구활동이나 체험활동을 할 경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중학생일수록 자신의 취향에 맞는 옷을 선택하고 때와 장소에 적합한 옷을 입었다. 교복으로 자신의 멋을 살리는 중학생은 여러 사람이 모인 장소나 몇 명의 또래 친구와의 모임에서 자신의 의사표현을 잘 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활용하는 능력이 높을수록 옷을 입을 때 디자인의 원리를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리더의 역할을 하지만 문제가 생기면 당황해 하는 중학생일수록 유행하는 옷을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형적으로 친구들의 부러움을 받지만 내면적으로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어 그 불안감을 감추기 위해 외형적으로 더욱 돋보이기를 원하였다. 과제처리능력이 높을수록 불안감이 낮을수록 그리고 도전성이 높은 중학생이 한복수업의 유용성을 높게 인지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중학생은 의복행동의 즐거움과 조화로운 옷차림에서 평균이 높게 나타나, 의복에 관심이 높았다. 즉, 외출할 때 자신에게 어울리는 옷으로 마음껏 멋을 내고 옷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즐거워하였고, 친구와 같이 쇼핑을 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들은 연예인들의 외모에 관심을 가지지만 자신이 착용한 의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은 높지 않았다. 그리고 교복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개인의 취향에 따라 교복을 착용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중학생은 자신이 착용한 의복에 만족감을 높여 자신감을 부여하고 이로 인해 대인관계를 더욱 원활하게 하였다.

기술 · 가정 '의복 마련과 관리' 단원의 내용 활용에서 보면, 평상시 착용하는 의복은 쉽게 입을 수 있지만 한복은 입는 방법이 습득되지 않아서 대개 기술 · 가정 수업을 통해 한복을 입어보게 된다. 이때 과제를 원활하게 처리하고 불안감이 낮은 중학생은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므로 수업에 대한 자

신감이 높았다. 대단원 '의복 마련과 관리', 중단원 '옷차림'의 한복입기 수업은 이론적인 부분에 치중하기보다는 직접 한복을 준비하여 한복 구성, 착용 법을 습득하는 것이 더 학습효과가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남자 저고리와 바지, 여자 저고리와 치마를 마련하여 직접 체험을 통해 전통문화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마음에 드는 옷을 입어서 기분이 좋아지는 중학생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있게 말할 수 있었고, 때와 장소, 상황에 적합한 의복을 착용하는 중학생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높았다. 또한 교복을 멋지게 연출하는 중학생은 모임에서 자신의 의사표현을 잘 하였고, 유행을 선도하는 중학생은 모임에서 리더의 역할을 잘 해내지만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다. 즉, 대인관계에서 중학생들은 의복 역할의 중요함을 보여 주었다. '의복 마련과 관리' 단원의 내용 활용 능력이 높은 중학생은 자신의 옷차림에서도 높은 수행 능력을 보여 주었다. 또한 멋지게 착용한 교복은 자신을 당당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주어진 과제나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능력에 대한 믿음의 정도인 자기효능감의 요인에 따라 의복행동의 요인에 영향을 미쳤으며, 또한 '의복 마련과 관리' 단원의 내용 활용에서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청소년은 외모와 옷차림에 관심이 많으므로 학습자의 생각과 행동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지도가 필요하며 이들에게 자발적 학습을 이루어지게 하여 학습 기대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상황에 적합한 의복 착용이 자신의 외모를 더욱 돋보이게 한다는 것을 수업시간을 통해 인지시킨다. 자신감은 학습에 대한 기대가 높아져 행동변화를 수행하므로 개인의 체형에 맞는 옷차림으로 외모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연구 대상을 대구지역과 여자중학생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모든 남녀 중학생들에게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후속 연구에서는 여러 지역의 남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비교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References

1.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 191-215.
2. Bong, G. J., Syn, H. C., Yang, J. H., Chung, H. H., Lee, Y. H., & Jung, H. J. (2001). *Technology · home economics Textbook*. Seoul: Hunhseul.
3. Chun, J. H., & Ha, J. S. (2008). Adolescents' fashion reflecting the features of modern adolescents-focused on「SPORT&STREET」from 2001 to 2006-.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32*(1), 65-76.
4. Chung, S. B., Lee, S. B., Lee, J. S., Lee, C. J., Lee, H. J., Na, H. J., et al., (2001). *Technology · home economics Textbook*. Seoul: Kyohak.
5. Han, M. H., & Lee, E. H. (2009). A study related to adolescent students' school uniform behavior and attitude toward appearance.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1*(2), 23-43.
6. Jang, N. K., & Ko, E. J. (2004). Study on adolescents' clothing behavior, purchase evaluative criteria, and information source according to the use of internet.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Costume, 54*(7), 15-26.
7. Ju, I. S., Lee, H. J., & Han, Y. S. (2006). The recognition of students on appropriateness of clothing & textiles as educational contents in practical arts or technical education · home economics in the 7th curriculum of korea.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18*(3), 81-95.
8. Kang, M. H., & Oh, K. W. (2006). A study on middle school students' satisfaction and need for clothing section of home economics in the textbook.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18*(2), 63-77.
9. Kim, M. J. (2011). The mediation effect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between attribution style and adjustment to college. *The Journal of Career and Education Research, 24*(2), 139-154.
10. Kim, N. Y., & Rhee, K. C. (2001). A study on the adolescent consumers' behavior conformity in brand choice -Focused on casual wear-.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9*(12), 253-269.
11. Kim, T. H., Park, M. J., & Lee, J. Y. (2010). The interests, application, and learning desire of clothing section in technology · home economics curriculum of middle school. *The Research Journal of the Costume Culture, 18*(5), 1017-1030.
12. Ko, D. S., & Kang, I. W. (2009). The influence of participating motivation on self efficacy, class satisfaction and interpersonal relations among cultural physical education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Sport and Leisure Studies, 36, 943-954.

13. Koh, A. R., Jin, B. H., & Shim, J. E. (2000). Influencing factors of korean female adolescent's clothing behaviors -Effects of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ge and residenc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24*(4), 475-486.
14. Koh, A. R., & Lee, S. G. (1998). Female adolescents' clothing behavior as related to self-efficacy and sensation seeking.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22*(7), 931-941.
15. Lee, E. H. (2007). A study related to adolescent girl students' appearance-related attitude and clothing attitude.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16*(2), 421-432.
16. Lee, I. J., Lee, K. H., & Shin, H. J. (2001). *Psychology of Dress*. Seoul: Kyomunsa.
17. Lee, S. H., Lee, Y. S., Kim, S. S., Kim, J. S., Sunh, C., Lee, K. H., et al., (2001). *Technology · home economics Textbook*. Seoul: Doosan.
18. Lee, S. H., & Park, K. S. (2011).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of famale university students by self-efficacy and self-esteem. *The Research Journal of the Costume Culture, 19*(5), 1075-1087.
19. Moon, H, K., & Yoo, T. S. (2001). The effects of social self-efficacy on clothing attitude and degree of make-up depending on depression and stres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Costume, 51*(5), 77-94.
20. Oh, I. H., & Chung, M. S. (2002). The effects of high school students' self-efficacy, sex, and division of school on fashionability and conspicuous consumption of clothing.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5*(1), 28-41.
21. Park, E. H. (2009). *A study on the ambivalence of fashion product consume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Korea.
22. Pak, I. R., & Lee, E. H. (2003). A study on research of necessity and practice of contents of clothing and textiles education.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15*(3), 89-103.
23. Park, J. G., & Lee, K. H. (2011). The moderated effects of expectancy-values, self-efficacy, and task difficulty on middle school students' persistence in the physical education context. *The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50*(3), 251-262.
24. Schunk, D. H. (1991). Self-efficacy and academic motivation. *Educational Psychologists, 26*, 207-232.
25. Seong, H. K. (1994). Educational needs related to clothing and textiles perceived by secondary students, home economics teachers and professors.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6*(1), 61-72.
26. Shim, J. E., & Koh, A. R. (1997). Korean adolescents' clothing behavior as related to self-consciousness and weight control practice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21*(8), 1334-1345.
27. Son, J. S., & Shin, H. W. (2006). Preference, perception, need to study, practice of learned content and learning needs with respect to the clothing and textiles section of the technology and home economics curriculum.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18*(3), 149-161.

접 수 일 : 2011년 9월 15일
심사시작일 : 2012년 5월 8 일
게재확정일 : 2012년 7월 26일